

##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박 정 호  
((주)동방 기획부)

‘월간 양돈’지 창간 13주년을 맞아 그동안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크나큰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월간양돈’지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봅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로 어려운 양돈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울러 ‘월간 양돈’지는 그 명성 만큼이나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월간 양돈’지에 평소 느꼈던 아쉬웠던 점을 밝혀봅니다.

국내 양돈산업은 축산물 개방압력과 가중되는 인력난 및 축산폐수문제, 생산원가 상승 등의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 양돈협회 기관지로서, ‘월간양돈’지가 앞장서서 찾아야 할 것이며, 양돈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 원가 절감 방안’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선하고 맛있는 돈육 제품의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홍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돈농가가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 뿐이며, 지상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월간 양돈’지의 본문 내용 중, 각종 정보 및 논문발표 내용은 전달과 발표위주에서 탈피하고 실제 응용단계를 집중 분석하여 양축가가 쉽게 이해하고 실용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동물약품 분야에 종사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양돈업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수 없이 많으며, 성분이 유사한 제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분류하여 양축가가 약제선택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 질병 발생 양상 및 사양관리 형태에 맞게 객관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돈지는 축산 기술자의 교육용 교과서가 아니라 일반 양축가가 직접 이해하여 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월간 양돈’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더욱 알차고 충실한 양돈지가 되기를 바라며, 양돈가의 권익보호와, 각종 위험에 대비한 알람시계 역할 및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잡이 역할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